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금시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2(통11). 거룩한 주님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따스한 햇살을 비추시어 꽃망울을 터뜨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산과 들은 꽃빛으로 물들어가고, 작은 골목길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무겁고 두꺼운 옷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따스한 햇빛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햇살 아래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영혼 깊은 곳까지 환히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해와 공감에는 더디면서도 판단과 정죄에는 재빠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이 가진 작은 권위와 권력으로 사람 다스리기를 즐겨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생명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샅된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막16:6-7 인도자

♠ 교 독 문 31. 시편68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박경선 집사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84(통96).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함께

성경봉독 I. 삼상3:1-10 고정환 학생

..... II. 히13:1-6 박성실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하나님의 모닝콜 김재홍 목사

..... II. 열린 마음, 열린 문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양 242(통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이 닫혀있다'고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문이 열립니다.

다 함 께 : 아멘.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한 채 몸과 마음을 움크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신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상처 받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신앙강좌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 손성현 전도사
21세기 먹을거리 문제 / 이진아 선생	기도 : 윤성종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박소진 선생	조윤경 학생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권혁순 권사

4월	영접위원	조병무 조문규 박석희 진정숙 조항미 고숙이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시골 학교 선생님의 성사(聖事)

그이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다. 대중들과 영웅들 사이에 ‘매스컴’이라는 수단이 아직은 이루어져 있지 않던 그런 당시의 한적한 시골 사람들에게도 그이는 영웅으로, 현자로, 대가로, 조언자로 여겨졌다. 그이의 말은 속담으로, 그이의 문제 해결 방식은 행동 지침으로 통했다. 이 불멸의 인간, 그이는 누구였던가? -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사는 산타 카타리나 주 플라날토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던 만수에도 선생님이다.

그이를 잘 알고 있었을 뿐더러 그이의 제자들이었던 우리들에게 그이는 바로 이상 · 극기 · 겸허 · 이웃 사랑 · 삶의 슬기 등 인간의 기본 가치들을 성사적으로 상징하는 분이었다. 그런 종류의 가치들이란 순전히 추상적으로만 전달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포되고 옹호됨으로써만, 자신의 생활 속에 형상화한 사람으로부터 이끌어내어짐으로써만 생생하게 전달되고 체험될 수 있는 법이다.

만수에도 선생님은 이런 현상의 한 살아 있는 본보기였다. 하기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신화의 광채로 감싸 나가려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경애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로 말하면, 신화야말로 오히려 그이의 구체적인 생애를 박진하게 간직하는 최선의 형식이라고 해야 하리라. 마치 늘 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메마른 초원에 우뚝 솟아 있듯이 그이는 온 고을에서 유난히도 빼어난 인물이었다.

만수에도 선생님은 무엇보다 이상주의자였다. 인문 과학을, 그것도 엄격한 형태의 옛 신학교 인문 과학을 수학했다. 그런가 하면 경리에도 능통하고 법률문제에도 통달했다. 그밖에도 그이가 얼마나 많은 분야를 섭렵했던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가냘프고 여윈, 그러면서도 세련된 농민 티가 나는 이 미남자 지성인은 한적한 내륙 지방인 카타리나 주의 첫 이주자들을 가르쳐 버림받고 무식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들에게 그이는 언제나 한 신비였다. 도대체 고전 문화라고는 없던 그런 환경에서 그이는 거의 2천권이나 장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방으로 빌려주어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강요하다시피 읽혔으며, 라틴어 고전들을 원서로 공부하고 있었고, 스피노자 · 헤겔 · 다윈 같은 온갖 사상가들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보내어져오는 신문을 정

기 구둑하고 있었다. 상오와 하오에 학교 수업을 하고 나서, 저녁에 그이는 어른들을 가르쳤다. 그밖에 식자층을 위한 학원을 세워 경리 강좌도 열었으며, 나아가 정치와 문화 문제들을 토론하는 그룹을 지도하기도 했다. 사회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네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이 무명 사상가의 지칠 줄 모르는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지금은 이미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자기 옛 제자들에게 여러 기회에 간청을 받고는 혹은 헌법상의 권리에 관하여, 혹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혁명에서 연유하는 권력의 합법성에 관하여, 혹은 브라질의 역사 문제에 관하여 레포트를 만들어 주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점을 받아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적에 선생님이 흐뭇해하시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이미 말한 대로 그이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러나 이미 초급반에서부터 학생들에게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기초낱말들을 가르치고 언어학적 기초 개념들을 전수했다. 나중에 상급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들은 이 말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술술 외워 내곤 했던가! 이렇게 이 학교에서 그이는 한 인간이, 바로 이 초등 대학교에서만 졸업장을 받은 한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전해 주었다: 생태학의 기본 개념, 임대차 관계, 토지 측량, 시민 생활의 법제, 주택 건축의 주요 법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일로서의 종교...

라디오가 시장에 나오게 되자 그이는 여러 대를 구해다가 모든 이민자들에게 사도록 강권했고, 손수 곳곳에다가 접속시켰다. 의도인즉 주민들로 하여금 지평이 넓어져만 가는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게 하자는 것이었다. 구어인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그밖의 교양도 넓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피를 부릴 줄도 알았다. 곧, 라디오를 그 사람의 집 앞 전봇대에다가 매달아 틀어놓고는, 그것도 큰 소리로 틀어 놓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페니실린이 유통될 무렵에는 더러 의사들마저 이미 포기해 버린 여남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도 했다. 사실 주민들은 그이가 여러 의학 서적에서 배운 처방과 어느 약방에선가 사다놓은 약품들에 대하여 그야말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이는 또 이민 온 백인들에게 몹시 천대를 받던 혼혈아들과 흑인들의 변호인 노릇도 했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칭송하는 소리들을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하늘에는 하느님, 땅에는 만수에토님”이라고!

살아가는 일이 힘이 들거든

최광림

살아가는 일이 / 힘들고 지치거든
창 밖을 내다 볼일이다

흘러가는 구름이나
이름 모를 풀꽃들에게 눈길도 주어보고
지극히 낮은 보폭으로
바람이 전하는 말을 / 다소곳이 되뇌어도 볼일이다

우주가 넓다고는 하지만
손 하나로도 가릴 수 있어 / 그 손에 우주를 짊 수도 있어
마음의 눈을 열면 / 세상은 온통 환희요 축복이다

마냥 가슴을 옥죄어 오듯 / 꿰어오르는 설움이 불질하거든
실낱같은 그리움도 훌훌 털어 / 굵이치는 강물에 부러도 보고
어쩌다 허전한 날은
문설주에 귀 대고 / 낮달의 낮은 음계를 헤아려도 볼일이여

비움으로서 넉넉해지고 / 소실로서 아름다울 수 있는
그대 가슴에 점 하나 찍어 둘 일이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박영희 배근수 김금순 오자영 정복순
 최종원 허호범 박성실 홍순구 안홍숙 김정애 정한구 왕영순 장원호
 박성희 곽새롬 박애순 무명2

월정헌금:

고숙이 권혁순 박혜경 김미순 김윤정 배부례 송임회 윤주원 최윤선
 최철수 곽권희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유지은 정현숙
 이증자 박인혁 구명자 박석희 조항미 나승철 강미라 무명2

감사헌금:

이지훈 조삼섭 홍성보 김지윤 박홍재 한완식 임정자 유영남 홍순구
 안홍숙 김정섭 박순록 김용진 박효선 조은나 조항미 무명1

녹색꿈헌금:

최경미 박영진 윤미경 안종일 최경미 이한라 임 영 정경례 무명1

생일헌금:

이종현 김수은 김정애 박병구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정두리	송임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차혜심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명순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애순	박옥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정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야외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송양진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배삼순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에 신앙강좌가 열립니다. 21세기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진아 선생(환경생명 저술가)이 강의합니다.
3. **기획위원회** : 오후 집회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입니다.
4. **수련회 준비 회의** : 올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 **설립기념주일** :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2시에 평화노래꾼 홍순관 집사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6. **기도회** : 생명의 강 살리기 개신교 기도회가 29일(목) 오후 2시 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립니다.
7. **신앙실천** : 과대포장을 줄입니다. 선물포장뿐 아니라 말과 삶까지 과도한 꾸밈을 줄입니다.

* 떡 대접 : 조준수 (첫돌)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다음 주 : 베다니 속)

* 설거지 봉사 : 장재영 김재영 이준하 (다음 주 : 정희은 오재환 김세진)

예배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